

유방검진학회의 현황과 미래과제

정 수 영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영상의학과

유방검진학회 창립

유방검진학회(Korean Society for Breast Screening)는 유방암 검진 분야에서 의학 연구, 전공의 및 전문의 교육, 학술지 발간, 국제 교류를 담당하며, 유관 학회와의 유대강화 및 연구 지원, 유방암검진 관련 국가의료정책 자문, 타 의사회와의 상호 협조를 목적으로 2004년3월25일에 영상의학, 예방의학, 방사선종양학, 병리학, 가정의학의 등 의사 및 의학물리학자 341명의 회원으로 창립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5대 암 검진사업의 하나인 유방암 검진사업을 2002년부터 시작하여 하위 20%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유방암 검진을 필두로, 2004년에는 그 범위가 하위 50%로 확대, 수검인원이 73,966명이었으며, 2004년에는 9배 이상 늘어난 683,371명이 수검하였다. 또한 2008년 2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바랍직한 국가 유방암 표준검진체계를 위한 ‘유방암 검진 질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2015년에는 전국민 암검진 수혜율 80%, 국가 암조기검진 수혜율 60%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는 국가가 유방암검진사업을 강력히 지원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생각되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유방암 검진프로그램 수행체제 확립, 검진프로그램의 평가로 암발견율의 비교, 발견된 암의 병기, 추가검사의 비율 등이 따라야 하며, 한국 여성 유방의 특성에 맞는 정책 연구개발, 유방암 검진사업의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정책 입안의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학술 단체로서의 역할이 부여되었다.

활동 및 현황

창립 이후 현재까지 본 학회는 매년 2회씩 서울과 지방을 번갈아 유방검진에 관한 학술 연구, 숙제보고, 의학 교육, 정책개발을 위한 발표, 심포지움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또한 유방검진을 위한 홍보 및 대민봉사로 유방전문 의와 전공의로 편성된 의료팀을 구성하여 유방진찰, 교육 및 유방촬영술을 시행하여 결과를 통고하여 주고 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유방검진에 대한 인식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장검사를 통한 우리나라 유방검진의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의학회 회원학회 중 학술 활동 또는 학술 내용에 있어 관련이 깊은 학회는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병리학회, 한국의학물리학회로 검진학회시 서로 연계된 공동의 주제를 논의하여 왔으며 향후 유방검진과 연관된 외과학회, 산부인과학회, 가정의학회와도 공동과제를 계획 중에 있다. 또한 주로 유방암 진단 후 수술 및 치료에 전념하는 외과의로 구성된 유방암학회, 방사선종양학회 등의 과도 연계하여 학술활동을 하고자 한다.

창립총회에서부터 현재까지 시행된 정기학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유방검진학회 정기 학술대회 및 총회]

- 2004. 3. 25 창립총회 서울 신라호텔
- 2004. 7. 11. 제1차 춘계학술대회 및 총회.
연세의대 영동세브란스병원 대강당
- 2004. 11. 13. 제2차 추계학술대회 및 총회.
화순 전남대학교병원
- 2005. 5. 7. 제3차 춘계학술대회 및 총회.
연세의대 영동세브란스병원 대강당.
- 2005. 9. 24. 제4차 국제학술대회 및 총회.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

2006. 4. 22. 제5차 춘계학술대회 및 총회.
부산 인제대 의과대학 강당.
2006. 11. 11. 제6차 추계학술대회 및 총회.
서울아산병원 아산교육연구관 강당.
2007. 4. 21. 제7차 춘계학술대회 및 총회.
춘천 강원대학교병원.
2007. 11. 10. 제8차 추계학술대회 및 총회.
연세의대 영동세브란스병원 대강당.

[그 외 유방검진을 위한 대민 홍보 및 봉사활동]

2004. 9. 5 - 9. 7. 유방암 무료건강강좌.
롯데백화점 분당점, 영등포점,
잠실점.
2004. 10. 미국 단기 해외연수 장학금 지원.
2004. 11. 13 - 14. 광주 및 화순 지역 조기유방암
무료 검진. 교육, 상담
(전남도청, 대한영상의학회, 화순전
남대병원 후원)
2005. 5. 13 - 15. 어르신, 여성, 북한이탈주민 '을
위한 무료검진. 서울시청광장
(대한의사협회 주최)
2005. 6. 9 - 12. 서울시민 건강주간행사 - 2005
건강엑스포. 서울무역전시장.
유방 암 조기검진 및 상담.
(서울특별시 주최)

미래과제

첫째 학회의 정체성 확립 및 타 학회와의 차별화

유방검진학회는 유방검진분야에서 의학 연구, 교육, 학술지 발간, 유방암검진 관련 국가의료정책 참여 및 자문을 사명으로 하고 올바른 유방검진체계의 정착, 실행 및 평가를 핵심가치로 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또한 일부분 상호 중첩되는 활동분야를 가진 대한유

방영상의학회, 유방암학회 등과는 차별화되는 영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예방의학, 방사선종양학, 병리학, 가정의학의 등과의 연계된 공동과제의 학술활동이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

둘째 올바른 유방검진의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학술활동 및 공동연구과제 발굴

한국형 유방암은 서양에 비해 젊은 연령에서 많이 발생되며 유방촬영술 검사에서 유방의 실질밀도가 높아 유방촬영술의 민감도가 떨어지며 호발연령이 약 10년 젊은 점 등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이 필수적이다. 2008년 보건복지부에서 “유방암 검진 질 지침”을 발표하였는 바 이의 올바른 실행을 위한 유방암 표준검진체계가 필요하며 과정과 시스템의 올바른 질관리를 위하여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과의 공동과제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셋째 회원 확대

학회 회원의 입회 자격은 정회원은 유방검진과 관련된 전문의 또는 물리학박사로서 이사회 심의를 통과한 자와 준회원의 수련과정의 의사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 현재 회원은 341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영상의학의가 다수이다.

향 후에는 현재 구성원인 예방의학, 병리학, 의학물리학자 외에 유방검진의 확대에 더불어 외과, 방사선종양학, 가정의학, 산부인과의 등으로의 적극적인 회원의 확대가 바람직하다.

넷째 적극적인 홍보

유방검진학회의 설립목적과 활동상황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며, 소외계층 여성, 생활보호대상 여성을 위한 유방검진 등의 대민봉사도 필요하다.